시나리오

<붕어빵>

S#0. 현수의 집-거실-낮

텅 빈 집안. 현수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온다. 오른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있다. 현수는 집안 곳곳을 살핀 뒤 할머니 방의 문을 연다.

현수 : (방 문을 살짝 열며) 할머니…..

할머니의 이불이 개어져 있고 그 위에 편지가 있다.(현수 뒷모습 풀 샷) 편지를 읽은 현수는 비닐봉지를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간다. 떨어진 비닐봉지안의 붕어빵이 튀어나오며(클로즈업) 그 위에 글씨로 ‘붕어빵’이라고 나오며 페이드 아웃

S#1.현수의 집-부엌-낮

현수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심각해 보이는 대화를 한다. 현수는 거실에 앉아 만화를 보고 할머니는 방에 벽을 보고 누워있다.

현수 모 : (물잔을 내려 놓으며)여보, 요즘 어머니 더 악화 되신거 알아? 나 못 알아보는 건 둘째치고 금쪽 같이 여기던 우리 현수도 못 알아 보셔. 집에 계속 모셔 봤자 더 악화 되는 건 시간문제야.

현수 부 : 알아 나도.나는 뭐 모르겠어? 근데 그게 쉽나? 당신 우리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. 그런 분을 어떻게 시설에 보내. 좀 더 생각해보자 응?

벽 쪽으로 등돌린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현수의 내레이션이 깔린다.

현수 : 요즘 우리 할머니가 이상합니다. 말도 잘 안하고 내 음식도 막 뺏어 먹고……지금은 내가 차던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.(기저귀 클로즈업)(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있는다) 난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았는데….지금은 제일 낯설어요.(방문을 닫는다)

S#2.현수의 집-할머니의 방문 앞-낮

S#1에서 방문을 닫던 모습에서 그대로 장면 전환되며 현수가 방문을 닫고 친구들에게 말한다.

현수 : 집에 아무도 없어. 내 방 가자(할머니의 방안으로 장면 전환되며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. 할머니가 서서히 미소 짓는다. 약간은 슬퍼 보인다.)

S#3현수의 집-현수 방-낮

방에 들어온 현수, 숙제를 한 노트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위에 낙서가 되어있다. 그대로 할머니 방으로 뛰어간다. 할머니는 그대로 벽을 보고 누워있다.

현수 : 이거 할머니가 그랬지!!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!! 진짜 왜 그러는데 할머니 진짜 싫어 할매 진짜 이상해졌어!!!

그대로 현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친구들도 현수를 따라 나간다. 누워있던 할머니는 웃고있지만 눈물이 흐른다.

S#4.집 앞 놀이터-해 지는 오후

현수가 그네에 앉아있다.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뒷모습과 화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후회스러운 듯 머리를 싸맨다. 갑자기 뭔가를 결심한 듯 할머니와 자주가던 붕어빵 집에 간다.

현수 : (꾸겨진 천원을 꺼내며)아줌마 붕어빵 주세요.

S#5. 현수의 집-현관-오후

숨가쁘게 달려 집에 도착한 현수는 할머니 방에 들어간다. 할머니는 없고 그 위에 편지가 있다(S#0과 동일한 장면) 편지를 읽은 현수는 봉지를 떨어뜨리고 뛰쳐나간다. 할머니의 편지 클로즈업. 서툰 글씨로 ‘미안하다 늙은이 병수발 하느라 죄 없는 너희를 고생시켰다. 언제 정신이 또 돌아올지 몰라 멀쩡할 때 떠나려 한다. 미안하다’ 라고 적혀있다.

S#6.집 앞 골목-오후

정신없이 뛰며 할머니를 부르던 현수는 결국 넘어진다. 아파서 우는건지 서러워서 우는건지도 모르는 와중에 지나가던

아주머니가 일으켜 물어본다

아주머니 : 얘야 괜찮니? 누구 잃어 버린거야? 아줌마랑 같이 찾아보자 응? 울지 말고 아가

현수 : (눈물을 흘리며)아줌마 우리 할머니 찾아야 해요 할머니가 없어졌어요. 우리 할머니 애기 라서 혼자 있으면 안된단 말이에요.

아주머니 : 그래 그래 할머니 자주 가시던 곳 있니?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얘기해봐 응?

이 때 현수의 머릿속에 붕어빵 집이 스친다. 장면전환 되며 학교 앞으로 현수를 데리러 온 할머니와 둘이 붕어빵집에 가던 모습이 나온다. 그 길로 붕어빵 집으로 가자 신발 한 짝이 없어진 채로 붕어빵을 담는 할머니가 주인에게 타박을 받고 있다.

주인 : 아니 이 할머니가 돈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면 어째? 말이 안 통하네. 계속 이러면 경찰 불러요 응?

할머니 : (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)우리 현수 줘야해요 우리 손주가 붕어빵을 좋아해서 그래.

그 모습을 본 현수 그 길로 집으로 뛰어가 자신의 저금통을 들고 뛰어간다

현수 : 아줌마!!!(울먹이며) 이 돈 다줄 테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(눈물이 흐른다).(할머니의 손을 잡고) 가자 할머니 이제 우리집에 가자.

어리둥절한 주인을 뒤로 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앞서가는 현수와 해맑게 웃으며 뒤따라가는 할머니의 모습 풀 샷. 신발 한 짝이 없어진 할머니의 발과 짝짝이 신발인 현수의 발 클로즈업하며 페이드 아웃.